

佛像은 앞으로 國立博物館에서 保存하게 되어 있으나 이제 簡單히 紹介 하고자 한다.

二

이 像은 臺座 光背가 具存한 正面의 立像이다. 總高 八·八cm이며 像 高 四cm이다. 머리에 是 높은 三面花冠을 썼고 뒤에는 높이 三cm의 寶珠 形 火炎頭光이 있다. 火炎文은 陰刻線으로 表現되었고 火炎頂上에는 單 瓣蓮臺上에 跏趺座한 높이 一·四cm의 化佛이 一軀우뚱 솟아 있다. 比較的 긴 頸脖에는 کوت날이 솟고 두 눈은 길고 입가는 破損되어 알 수 없다. 顔面의 彫刻은 稚拙한 편이나 제법 端嚴한 風이 있다. 頭光에는 頭 部를 中心으로 一條의 輪廓線이 있어 火炎光과 區別된 內圓에 蓮瓣을 彫刻한 듯하다. 목에는 一條의 짧은 瓔珞을 걸었고 다시 어깨에서 무릎 까지 내려온 긴 瓔珞이 또 한줄 늘어졌다. 上體는 裸體이며 兩肩에서 늘어진 天衣가 두 팔을 거쳐 左右 均齊하게 臺座까지 내려오고 있다. 下體의 衣紋은 매우 얇게 表現되어서 下肢가 똑똑히 들어나 있다. 右手는 어깨까지 치켜 들어서 外掌하고 손에는 花枝를 들었으며 左手는 옆으로 늘어뜨려서 淨瓶을 잡고 있다.

臺座의 全高는 二·五cm로 蓮花臺座와 框座가 上下로 表現되었다. 蓮臺는 앞은 仰蓮과 單瓣八葉의 伏蓮으로 表示하고 그 밑에 一條의 聯珠 文을 들렸고 다시 그 밑에 높은 八角臺를 두었다. 이 蓮臺 밑은 四角 框座로서 높이 一·五cm、上幅 一·八cm、脚部의 幅 〇·三cm로 全體의 均衡上 매우 安定된 感覺을 준다.

三

이 像은 出土品에 틀림은 없으나 그 保存狀態가 良好하여 아직도 大部分의 鍍金이 殘 남아 있다. 石造佛像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 지 알 수 없 고 現地에서는 石造佛像이 있는 附近을 東岳寺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眞僞도 알 수 없을뿐 아니라 本像과의 關係도 밝힐 수 없다.

本像은 除土作業中 偶然히 發見되어 請負業者가 申告한 故로 그 出土 狀態를 全然 알 수 없음은 遺憾이다. 다만 石佛後面에서 出土되었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다.

四

끝으로 本像의 造像年代인 데 頭光의 火炎刻線이나 框座의 形式은 오랜 形式이며 天衣端이 左右均齊하게 臺座까지 내려오되 끝에 가서는 兩 쪽 모두 圓月을 그리고 있음은 隋代 佛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形式이다. 顔面의 表現에도 古態가 엿보인다. 그러나 한편 肢體의 modeling은 直立 像이 아니고 오른쪽 다리에만 全身의 體重을 얹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오른쪽으로 若干 틀렸다. 두 어깨는 손을 들어 花枝를 든 오른쪽 어깨 는 올라가고 늘어뜨려서 淨瓶을 잡은 왼쪽 어깨는 처져서 寫實的 表現 일뿐 아니라 全體적으로 매우 自然스럽게 보인다. 그 위에 一條의 瓔珞 이 前面에 걸쳐 늘어진 것은 後來하는 形式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本像 은 部分的으로 三國時代의 樣式이 남아 있기는 하나 또 한쪽에서는 肢 體의 處理 등에서 唐代의 樣式을 볼 수 있음으로써 해서 三國統一後 即七 世紀 末頃의 新羅의 所作으로 봄이 옳을 것 같다.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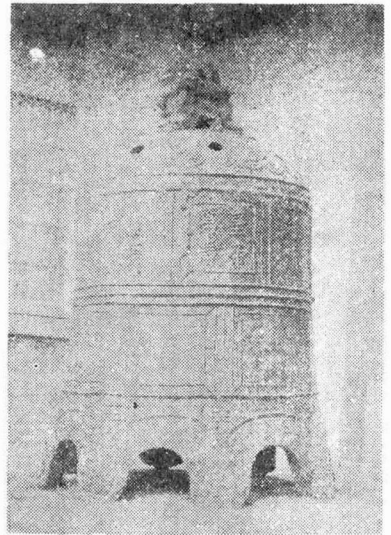
이 小佛像이 發見된 地點에서 있는 石佛立像은 이미 「朝鮮古蹟圖譜」 에 紹介된 바 있지만 이 小佛像이 發見되기 前까지 埋沒되었던 部分이 現在는 八角 蓮臺石의 上部까지 露出시켜서 堂堂한 巨軀의 全貌를 나타 내어 壯麗하기 이를 데 없다.

仁川博物館藏 元大德二年銘 鐵製梵鐘

李 慶 成

여기에 紹介하는 中國元代鐘은 前號에 紹介한 中國 銅造觀音坐像과 같은 經緯로 仁川博物館에 所藏된 몇 개의 鐘중에서 그 하나를 略報하 는 것이다.

이 鐘銘에 依하면 鑄造年代는 大德貳年 參月(元 成宗 西紀二二九八)이며 鐘高는 二四〇cm 口徑은 一五三cm에 達하는 大鐘으로서 우리 나라 에 將來된 元代梵鐘의 稀貴한 例가 될 것이다. 鐘身은 中國鐘 特有的



所謂 袈裟帶文으로 區分 裝飾되었었고 雙龍이 틀고 있는 龍紐와 八稜波狀鐘口의 樣式을 갖추고 있다. 이 鐘에는 大德二年이라는 紀年銘이 있어서 元初의 鑄造임을 알 수 있으나 手法上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唐鐘

樣式을 濃厚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全體의 形態는 輕快한 것이 있고 龍紐 밑으로부터 鐘肩에 걸쳐서 陽鑄된 簡明한 唐草文意匠이 鐘全體의 意匠을 잘 統禦하고 있다. 鐘肩의 이 唐草文意匠이 鐘는 等分된 間隔으로 八個所의 동근 구멍이 뚫려 있어서 注意를 끌고 있으며 鐘身部에 陽鑄된 여러 帶廓內에 上段에는 「皇帝萬歲 重臣千秋」를 비록한 大文字의 鐘銘을, 下段에는 細文字로 된 長文의 鐘銘이 있으나 判讀하기 힘든 部分이 많다. 八稜 狀形의 鐘口는 넓은 口緣帶를 이루고 있으며 이 八稜 口緣帶와 鐘身平行帶文사이의 間地에는 八卦가 配置되어 있다. 龍紐는 거의 完全한 狀態로 保存되어 있어서 巧妙한 雙龍의 寫實的 意匠이 매우 動的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보면 매우 素朴한 感覺을 주는 意匠이라 할 수 있으며 形態가 주는 느낌도 또한 優雅하다가 보다는 輕快한 느낌을 준다고 하겠다.

淨巖寺 水瑪瑙塔의 調査

鄭 永 鎬

淨巖寺는 事蹟記에 依하면 新羅 慈藏法師 創建이라 傳하나 上古의 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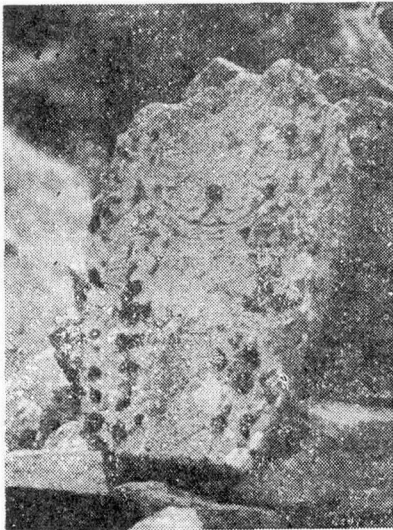
第一卷 第三號 通卷 三號

構는 없고 오직 寂滅寶宮에서 水瑪瑙塔 一基를 볼 수 있다. 이 塔은 寺域에서 約 百米 떨어져 咸白山(海拔 一五七三m) 비탈에 建立된 七層 樓塔石塔인데 바 이 곳에서 많이 採掘되는 水成岩類의 石灰岩을 一邊 三〇—四〇cm의 大小 博形으로 切斷하여 生石灰 等を 使用하여 築造하였는데 博石은 品계 다듬어 같았고 灰綠色으로 보였다. 「瑪瑙」라면 佛敎에서 말하는 七寶의 하나인데 事蹟記에 依하면 塔內에는 佛舍利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珍寶를 奉安하였다고 한다.

塔의 全高는 九m로서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方形 基壇은 花崗石으로 大段을 이루었는데 上下 各三層의 石質 相輪部에 있어 差異가 보이는 것은 創建以後의 改修로 인한 듯 하였다.

一層 塔身은 높이 一〇三cm, 넓이 一七八cm로서 南面 中央에 넓이 一三cm의 花崗岩石柱로 문틀을 마련하고(높이 六〇cm, 넓이 六二cm) 一枚石의 門扉는 中央에서 陰刻單線으로 兩分하고(一枚의 넓이 一一〇cm) 그 中心에는 쇠문고리를 달아 놓았다. 屋蓋반침은 一層이 七段인데

構는 없고 오직 寂滅寶宮에서 水瑪瑙塔 一基를 볼 수 있다. 이 塔은 寺域에서 約 百米 떨어져 咸白山(海拔 一五七三m) 비탈에 建立된 七層 樓塔石塔인데 바 이 곳에서 많이 採掘되는 水成岩類의 石灰岩을 一邊 三〇—四〇cm의 大小 博形으로 切斷하여 生石灰 等を 使用하여 築造하였는데 博石은 品계 다듬어 같았고 灰綠色으로 보였다. 「瑪瑙」라면 佛敎에서 말하는 七寶의 하나인데 事蹟記에 依하면 塔內에는 佛舍利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珍寶를 奉安하였다고 한다.



供養石



水瑪瑙塔